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물관리 현장설명회

성낙성 기자 jeb08585@ksmnews.co.kr 입력 | 수정 2025.05.25 17:26



↑↑ 농어촌공사 성주지사서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가졌다.사진/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제공

[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성주지사 회의실에서 '2025년 성주지사 물관리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운영대의원, 수리시설 감시원 및 농업인 단체장 80명을 대상으로 농정 방향과 공사 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농업인과 공사가 동반자로서 일체감을 형성하고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공사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으로 '안전관리 선서식'을 갖는 등 작년부터 신설된 "활동금지사항"에 대한 안전 인식을 재차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일기예보 앱 등을 통한 기상정보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호우 및 긴급 재난으로부터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돈문 성주지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낀다.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올해도 영농 편의와 재해예방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